

# ‘時間副詞+V-었다’가 나타내는 動作의 時間的 樣相

李 庸 周  
(서울대학교 師範大學 國語教育科)

## 1

本稿는 필자의 “韓國語 動詞의 意味論的 分類와 ‘~는다/-는다’ 形의 意味에 관한 研究”(1983)와 “時間副詞와 動詞의 ‘~겠다’ 活用形이 나타내는 動作의 時間的 樣相”(1984)의 후속으로 앞서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瞬時完結動作動詞, 持續未完結動作動詞, 過程動詞, 狀態動詞, 心理現象, 關係, 缺如 등을 나타내는 動詞등 일곱가지 종류의 동사 약간을 가지고 그것들이 각각 現在 未來 過去를 나타내는 時間副詞와 함께 쓰여서 나타내는 실제 동작이 어떠한 時間的 樣相을 띄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궁극적으로는 韓國語 動詞에 時制 範疇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혀보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은 이미 前稿(1983)에서 밝힌 바 있다.

## 2

瞬時完結動作을 나타내는 동사의 ‘V-었다’ 形이 現在의 時間副詞와 함께 쓰여서 나타내는 동작의 시간적 양상을 보기로 한다.

- (1) 철수는 오늘 출발(도착)하였다.
- (2) 나도 오늘 떠났다. (당았다.)

주어가 3인칭인 (1)이나 1인칭인 (2)나 그 出發이나 到着이 ‘發話時 以前의 오늘’이었음을 나타낸다. 즉 그 동작이 발화시 이전에 이미 행해졌음을 나타낸다. ‘오늘’ 대신 ‘지금’을 사용해도 다르지 않다.

- (3) 철수는 지금 출발(도착)하였다.

(3)은 철수의 출발이 ‘지금’ 進行中임을 나타내기 위한 발화가 아니다. 瞬時完結動作을 나타낸다는 動詞의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것이다. (3)이 나타내는 동작은 ‘지금’이 가리키는 시간대에서 끝난 것이다. 出發이나 到着은 순간적으로 끝나는 동작이다. ‘오늘’

이 사용되었을 때는 發話時와 動作時의 간격이 24시간이라는 넓은 폭에 걸칠 수 있으나 ‘지금’이 사용되면 그 폭이 아주 좁아져서 發話時와 動作時는 一瞬의 간격뿐일 수도 있다. 어쨌든 (1)~(3)은 모두 그것이 나타내는 동작이 ‘오늘’이나 ‘지금’ 進行中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이제+V-었다’는 (4)에서와 같이 未來에 있어서의 動作과 관련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쓰인다.

(4) 수속이 끝났어? 이제는 떠났다.

‘V-었다’는 ‘내일’ 등 미래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여서 (5)와 같은 文을 만들지 않는다.

(5) \*철수는 내일 출발(도착)했다.

그러나 (6) (7)의 경우와 같이 敘述終結形이 아닌 ‘V-있(았)으면’은 분명히 미래를 지시하는 부사와 함께 쓰여서 積格문을 만든다.<sup>(1)</sup>

(6) 철수는 내일(모레) 출발(도착)했으면 좋겠다.

(7) 너는 사흘 후에 출발(도착)한다면? 너도 내일이나 모레 출발(도착)했으면 좋겠다.

(6)이나 (7)이나 모두 ‘내일, 모레, 사흘 후’라고 하는 분명한 未來에 있어서의 出發이나 到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의 그 動作은 過去의 것도 아니며 現在의 것도 아니다. 또 그것이 未來에 있기를 願望 또는 希望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完了된 동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이런 것은 (8)이나 (9)와 같이 말할 수도 있다.

(8) 철수는 오늘 출발한다지? 내일 가면 좋겠다.

(9) 너 사흘 후에 간다면? 너도 내일이나 모레 출발하면 좋겠다.

過去의 時間副詞와 함께 쓰이는 ‘V-었다’형은 그 시간부사가 지시하는 과거에 있어서 이미 행해진 出發이나 到着을 나타낸다.

(10) 나는 어제 출발(도착)하였다.

(11) 철수는 그제же 출발(도착)하였다.

(10)과 (11)은 1인칭과 3인칭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 시간부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이미 끝난 출발(도착)이며 그 시간대 속에서의 정확한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시간으로 보면 과

(1) 現在나 過去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여서 積格문을 만드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 發話時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간 이전에 있어서의 행동이라면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5분 후에’ ‘1년 뒤에’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등등의 語詞등과 ‘V-었다’形이 함께 쓰인다. “철수는 어제 영희와 만난 5분 뒤에 부산에 가기 위하여 서울을 출발했다”에서 ‘5분 뒤’라는 말이 있지만 그 ‘5분 뒤’라는 것은 ‘어제’의 특정한 時點(영희를 만난)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어제’는 발화시가 ‘오늘’일 때만 사용될 수 있는 시간부사다.

거에 속해 있고 동작으로 보면 과거에 있어서 이미 끝난 것이다.

3

持續未完結動作을 나타내는 'V-었다' 形은 '오늘' 같은 現在를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쓰여서 그 부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해당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12) 오늘은 하루 종일 눈이 내렸다.

(13) 나? 지금 공부했다.

'눈이 내리다'의 '내리다'나 '공부하다'는 순간적으로 완결되는 동작을 나타내지 않는다.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완결되지 않은채, 지속되는 동작을 나타낸다. (12)는 '오늘'이라는 시간대에 걸쳐서 降雪이 지속되었음을 나타내고 (13)은 '지금' '공부하다'는 동작이 행해졌음을 나타낸다. (12)의 경우, 降雪이 완전히 멈추어서 내일에는 降雪이 없을 것으로 예측될 때나, 발화시 현재는 물론 降雪이 지속되고 있고 또 내일도 지속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될 때도 사용될 수 있다. 다음 (14)~(17)이 적격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14) 오늘은 하루 종일 눈이 내렸다. 그러나 이제는 말끔히 개었고 내일은 쾌청하리라는 예보도 발표되었다.

(15) 오늘은 하루 종일 눈이 내렸다. 그리고 지금도 강설은 계속되고 있으며 내일도 하루 종일 눈이 내릴 것이라고 한다.

(16) 나? 지금 공부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꿈을 꾸기 위해서 잠을 자야겠다.

(17) 너 지금까지 뭐했니? 나 지금 공부했다. 아직도 30분은 더 해야 끝날 것 같다.

보통 持續未完結動作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생각되는 '가다'와 같은 것은 그 용법이 색다르다.

(18) 나는 지금 학교에 간다.(=가고 있다.)

(19) 철수야 영희가 지금 너의 집으로 갔다.

(18)은 '지금'이라는 現在副詞와 함께 쓰여서 학교에 가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중임을 나타낼 수 있다.(물론 아직 출발하지 않았을 때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때의 '가다'는 瞬時完結이 아니다. 그러나 (19)의 경우는 '갔다'는 '출발했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가다'라는 동사는 가는 행동의 始發도, 그 持續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동사다. 그래서 '갔다'는 (19)에서와 같이 출발이 끝났음을 나타낼 수도 있고 (20)과 같이 일정시간 지속된 행동이 끝난 것이나 그 결과 어떤 장소에 다달아 있음을 나타내는 데 쓰일 수도 있다.

(20) 철수야, 경일이 오늘 너의 집에 갔니?

‘이제+V-었다’는 (21)과 같이 未來에 있을 動作과 관련된 것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21) 그래, 이제 집에는 다 갔구나.

持續相의 動詞도 그 ‘V-었다’가 미래의 시간 부사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22)는 부정격이다.

(22) \*철수는 내일 학교에 갔다.

그러나 瞬時完結動作動詞(例文 (6) (7))에서와 같이 持續未完結動作動詞의 경우도 (23) (24)와 같이 ‘未來時間副詞+V-었으면’形은 자연스럽게 쓰여서 條件문을 만든다.

(23) 내일 비가 내렸으면 한다.

(24) 이렇게 느려서야, 앞으로는 좀더 빨리 달렸으면 한다.

‘V-었다’形이 과거 시간부사와 함께 쓰이면 그 시간부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있어서 이미 행해진 동작을 나타낸다.

(25) 어제 비가 내렸다.

(25)의 경우 오늘도 降雨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관심 밖이다.

## 4

過程을 나타내는 ‘V-었다’形이 현재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이면 그 시간부사가 지시하는 시간에 어떤 過程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낸다.

(26) 지금 그의 안색이 달라졌다.

(27) 철수는 금년에 많이 자랐다.

(26)은 그의 안색이 이미 달라질만큼 달라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의 안색의 변화는 끝났다. ‘지금’ 안색의 변화가 진행중인 것이 아니다.

(27)은 성장기에 있는 철수가 금년에 이룩한 성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금년에 자라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발화시까지의 성장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철수가 내년엔 더 자란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26)과 (27)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차이는 이들 두 동사의 속성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맥락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28)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다.

(28) 요즈음 일·이년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다.

(28)은 최근 1.2년간의 세상의 변화를 결과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할 것인데 (28)과 같은 발화가 그것을 배제하는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時間副詞+V-었다’가 나타내는 動作의 時間的 樣相

過程動詞도 ‘이제+V-었다’形은 (29)와 같이 未來에 있어서의 過程과 相關된 것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29) 비가 흠뻑히 내렸으니 이제는 풍년이 되었다.

過程을 나타내는 동사의 ‘V-었다’도 미래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30)은 부적격이다.

(30) \*철수는 내년(도) 많이 자랐다.

그러나 앞에서 고찰한 동사의 경우처럼 過程動詞도 ‘V-었으면’形은 (31)과 같이 未來의 시간부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쓰여서 적격문을 만든다.

(31) 이 나무도 내년에는 많이 자랐으면 좋겠다.

過去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인 過程동사의 ‘V-었다’形은 그 시간부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있어서의 過程의 끝남이나 잠정적인 끝남 또는 그 結果를 나타낸다.

이것은 현재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인 ‘V-었다’形도 마찬가지이다.

(32) 지난 일년동안 이 산은 나무를 모두 베어버려서 빨갛게 변했다.

(33) 철수는 작년 일년동안 15cm 나 자랐다.

(32)에서 그 변화는 끝났다. 이제 더 빨개질 것이 없다. 나무를 심어서 다시 푸르게 만드는 일은 가능하다. 그러나 빨간 산이 다시 푸르게 변하는 것은 별개의 변화요 별개의 過程이다.

(32)가 나타내는 변화 과정의 경우와는 달리 (33)은 철수의 성장이 금년으로 끝나는 것을 못박은 발화가 아니다. 금년으로 끝날 수도 있고 더 자랄 수도 있으나 그것은 더 두고 봐야 하므로 더 자라지 않는다는 어떤 부차적인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다만 금년에 자란 그 結果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 5

狀態動詞의 ‘V-었다’형이 현재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이면 그 시간부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있어서, 발화시 이전에, 그러한 狀態에 있었음을 나타낸다.

(34) 철수의 방에는 오늘 꽃이 피어 있었다.

(35) 지금 그의 눈은 유난히도 빛났다.

(34)의 경우 ‘오늘’은 24시간이라는 상당히 긴 시간대를 가진다. 그런데 이 같은 발화는 바로 그날에 행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34)는 오늘은 오늘이로되 발화시 이전의 오늘 철수의 방에 꽃이 피어 있었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35)의 ‘지금’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극히 짧은 시간대의 현재를 지시하는 부사이거나 그래도 발화시 현재 그의 눈이 유난히 빛난다는, 현재에 있어서의 狀態의 持續이 아니다.

(34)는 발화시 현재도 또는 발화시 이후인 '내일'까지도 꽃이 피어 있다는 狀態가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日暮와 더불어 시들어버리는 꽃이라면 이미 철수의 방에는 開花狀態는 없을 것이다. 또 화분이나 화병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꽃이 계속 피어 있건 시들었건 철수의 방에는 없는 것이 된다. (34)는 이와 같은 복잡한 것 중 어느 하나의 의미로만 꼭 쓰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 오히려 이러한 여러가지 형편을 도와서 하코 발화시 이전의 오늘 또는 그 중 일부분일 어떤 時點에 철수의 방에 꽃이 피어 있었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35)의 경우 '지금'은 극히 짧은 시간대가 되겠지만 그래도 (35)가 발화시 현재의 '빛나는 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역시 발화시 이전의 상태가 焦點이다.

아무리 現在를 지시하는 시간부사와 함께 쓰이지만 狀態動詞의 'V-었다'형은 발화시 현재의 持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발화시 이전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狀態動詞도 '이제+V-었다'는 (36)과 같이 未來에 있어서의 狀態와 관련된 것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36) 그 야단이 났으니 이제 이 집에는 다 있었다.

이것은 앞으로 못 있게 뻗는 말이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것으로 끝났다고 해석하면 의미가 통한다.

狀態動詞의 'V-었다'도 미래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37)은 부적격이다.

(37) \*영이는 내일 집에 있었다.

그러나 'V-었으면……'은 狀態動詞에서도 미래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여서 (38)과 같은 적격문을 만든다.

(38) 영이가 내일(은) 집에 있었으면 한다.

狀態動詞의 'V-었다'형이 과거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이면 그 부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있어서 크러한 상태이었음을 나타낸다.

(39) 어제 그의 방에는 장미 화분이 있었다.

(40) 아까 너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눈동자는 매섭게 빛났다.

(39)의 경우 오늘 그 화분이 있고 없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특정한 상태의 終止라고 할 수가 없다. 이와는 달리 (40)의 경우는 그 순간으로 끝나는 사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눈빛이 지금까지 그 상태로 있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다.

助詞를 사용해서 이러한 의미의 차를 나타내는 방법이 한국어에는 있다.

- (41) 어제도 그의 방에는 장미 화분이 있었다.
- (42) 어제는 그의 방에 장미 화분이 있었다.
- (43) 어제만은 그의 방에 장미 화분이 있었다.
- (44) 어제까지 그의 방에 장미 화분이 있었다.

(41)은 脈絡에 따라 ‘어제’ 이전에도 장미 화분이 있었는데 어제도 있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오늘 장미 화분이 있는데 어제도 그것이 있었다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와 달리 (42)는 평소에는(또는 오늘은) 그의 방에 장미 화분이 없(었)는데 ‘어제는’ 그것이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크리코 이러한 의미, 즉 다른 날에는 없었거나 없는 것이 어제만 있었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43)이다. (44)는 그전 어느때부터 어제까지 계속해서 장미 화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는 話者가 그 사실만을 말한 것이며 ‘오늘’은 그것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44) ‘어제까지’에 ‘는’을 첨가하면 어제까지 그의 방에 장미 화분이 있었다는 것을 힘주어 말할 뿐 ‘오늘’ 그것이 있고 없고를 잘라 말하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아래한 의미의 ニュアンス는 助詞에 의한 것이며 부사와 상태 동사의 ‘V-었다’ 형이 빚어내는 의미는 아니다.

6

關係를 나타내는 동사의 ‘V-었다’ 형은 현재 시간 부사와 함께 쓰여서 그 부사가 지시하는 時間帶에 關係가 獲得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 (45) 우리팀은 그 연맹전에서 오늘 이겼다.

(45)는 오늘 得勝이 있었음을 말하는 데 쓰인다.<sup>(2)</sup> 크리코 어제의 경기나 내일의 경기에 대해서는 中立的이다.

시간부사 ‘이제’와 함께 쓰인 ‘이기었다’는 (46)과 같이 未來에 있어서의 得勝이 확실하게 되었거나 자신을 갖게 되었을 때 또는 이길 작정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또 ‘이겼다’는 ‘이기겠다’ ‘이긴다’로 바꾸어도 좋다.

- (46) 이제 우리팀이 이겼다. (이기겠다. 이긴다.)

關係詞 ‘가지다’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이 동사의 용법 또한 흥미 있다.

- (47) 너 지금 돈 얼마나 가졌니? 만원 가졌다.

(47)은 (48) (49)와 같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2) ‘이긴다’라는 활용형은 “지금 우리팀이 이긴다(이가고 있다)”에서와 같이 競技途中의 優勢를 나타내는 데도, 未來의 得勝과 關係해서도 쓰이는데 야미 끝난 경기 종료 후의 得勝을 나타내는 데는 쓰이지 못한다.

- (48) 너 지금 돈 얼마나 가지고 있니? 만원 가지고 있다.
- (49) 너 여기 있는 돈 중에서 얼마나 집었니? 만원 집었다.

(47)은 (48)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49)와 같은 의미의 용법도 드물지는 않다. (50)과 같은 것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 (50) 애기가 뽕상에서 돈을 가졌다.

所有中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所有關係의 발생이 일단 끝났다는 것이 (50)의 의미다. 요컨대 현재 시간부사와 함께 쓰인 ‘가졌다’는 現在의 所有關係를 나타내는데도 쓰이고 새로운 소유관계의 성립을 나타내는 데도 쓰인다.

關係動詞도 ‘이게 + V-었다’는 (51)과 같이 未來에 있어서의 ‘關係’와 관련된 것을 나타낸다.

- (51) 철수가 왔으니 이제 우리가 이겼다.

關係動詞의 ‘V-었다’도 關係의 獲得이나 關係의 持續을 나타내기 위하여 未來의 시간부사와는 함께 쓰이지 않는다. (52) (53) 모두 부정적이다. 그러나 未來에 대한 意欲 展望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쓰일 수도 있다.

- (52) \*우리팀은 내일 이겼다.
- (53) \*나는 내일 만원을 가졌다.

그러나 關係動詞도 ‘V-었으면’形은 미래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인다.

- (54) 우리팀이 내일 이겼으면 좋겠다.
- (55) 내년에는 너도 집을 가졌으면 한다.

(54) (55)가 모두 적격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關係動詞의 ‘V-었다’形이 過去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이면 그 시간부사가 지시하는 과거의 특정한 시간대에 그런 관계가 획득되거나 성립되었음을 나타낸다.

- (56) 수남이는 그 경기에서 어제 이겼다.
- (57) 그는 겨우 작년에 집을 가졌다.

(56)은 경기 결과로서의 得勝을 나타내고 (57)은 ‘작년’에 집을 ‘획득(?)’했음을 나타낸다.<sup>(3)</sup> (57)은 (58)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

- (58) 그는 작년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

(3)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가졌다’가 현재의 시간부사 ‘지금’과 함께 쓰여서 현재의 所有關係를 나타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過去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이면 그 시간부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있어서의 소유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所有關係의 成就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57)은 작년부터 ‘집의 所有’가 시작된 것이며 (58)은 ‘단순히’ 작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말하기 위해서도 쓰일 수 있고 또 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집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일 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문맥에 따라서는 작년에 가지고 있던 집은 금년에 팔았다고 하는 ‘작년까지의 所有’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일 수도 있다.

7

心理現象을 나타내는 동사의 ‘V-었다’形이 현재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이면 그 시간부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있어서 특정 심리작용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 (59) 철수는 그 일을 오늘 알았다.
- (60) 나는 지금 그 사건을 생각했다.

(59)는 어떤 일에 대한 認知가 發話時 이전의 오늘 이루어졌음을 말한다. (60)의 경우는 발화시의 생각한 시간과의 시간적 거리는 극히 짧지만 역시 발화시 이전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心理現象을 나타내는 動詞의 ‘V-었다’도 ‘이제’와 함께 쓰이면 (61)과 같이 未來에 있어서의 心理現象과 관련된 것을 나타낼 수 있다.

- (61) 증거서류를 본실했으니 사건의 전모는 이제 다 알았다. (모르게 되었다.)

心理現象을 나타내는 동사도 그 ‘V-었다’는 미래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62)(63)은 부적격이다.

- (62) \*철수는 그 일을 내일 알았다.
- (63) \*나는 이따가 그 사건을 생각했다.

그런데 心理現象을 나타내는 동사도 (64)(65)와 같이 다른 동사의 경우처럼 그 ‘V-였으면’形이 미래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인다.

- (64) 그가 언제 오는지 내일 알았으면 한다.
- (65) 그 일은 내일 생각했으면 좋겠다.

心理現象을 나타내는 동사의 ‘V-었다’形이 過去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이면 (66)(67)과 같이 그 시간부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있어서 그러한 심리작용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 (66) 나는 그 사건을 어제 알았다.
- (67) 그 문장은 이미 어제 알기했다.

8

缺如動詞의 ‘V-었다’形은 現在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여서 그 부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의

발화시 이전에 그러한 缺如狀態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68) 영희는 오늘 결석했다.

(68)은 오늘 영희가 학생이라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있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발화다. 만일 늦게라도 공부하기 위하여 학교에 나타났다면 그것은 결석이 아니라 지각이다. 缺如動詞라도 ‘잊다’와 같은 경우는 양상이 달라진다.

(69) 어제까지도 잘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 깜빡 잊었다.

(69)에서 처럼 ‘어제까지……’ 云云하는 부분이 들어 있으면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없어도 ‘잊다’라는 동사는 본디부터 기억하거나 알고 있던 것의 缺如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원래 알고 있던 것, 기억하고 있던 것만을 잊을 수 있다. 認知나 記憶이라는 心理作用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나 영원히 없어진 것을 가리키는 동사가 ‘잊다’인 것이다. (70)은, 그런 말이 함께 쓰이지 않았지만, 잊기 전까지는 그 일을 알거나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전제로 사용된다.

(70) 아, 내가 잊었구나.

그리고 이와 같은 발화가 의미하는 記憶의 缺如는 발화시 현재나 이전의 일이다. (70)과 같은 발화가 사용되는데는 잊었던 일을 다시 기억해 냈기 때문이다. 이 동사는 ‘잊는다’라는 형식으로도 현재 기억의 결여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정말로 잊고 있다면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마저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缺如動詞의 ‘V-었다’形도 ‘이제’와 함께 쓰이면 (71)과 같이 未來에 있어서의 缺如에 관한 것을 나타낼 수 있다.

(71) 구실이 없어졌으니 이제 다 결석했다(=결석 못하게 되었다).

缺如動詞의 ‘V-었다’形 또한 未來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이지 않으며 ‘V-있으면’形만이 미래 시간부사와 함께 쓰인다.

(72) \*복순이는 내일 결석했다.

(73) \*나는 그 일을 내일 잊었다.

(74) 복순이가 내일 결석하였으면 좋겠다.

(75) 그 사건은 곧 잊었으면 한다.

(72) (73)이 부적절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74) (75)는 적절이다. (75)의 ‘곧’은 아주 짧은 발화시 이후를 가리키는 말이다.

缺如動詞의 ‘V-었다’形이 過去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이면 (76) (77)과 같이 그 시간부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있어서 그러한 缺如狀態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76) 영희는 어제 결석했다.

(77) 순이는 어제든 그 일을 까맣게 잊었다. 그리고 오늘도 그랬다.

물론 (77)은 (78)과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78) 순이는 어제든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9

이상으로 몇 가지 유형의 동사를 가지고 그 ‘V-었다’形이 現在 未來 過去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여서 나타내는 動作 過程…… 등이 發話時를 기준으로 하여 어떤 時間的 樣相을 띄는가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것은 대강 다음과 같다.

(1) 現在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여서 나타내는 動作 過程등은 그 시간부사가 지시하는 시간대에 있었던 것이다. 다만, 그것은 發話時 이전이다. 발화시 현재 동작이나 과정 등이 進行 내지 持續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 현재의 시간부사 ‘이제’와 함께 쓰인 ‘V-었다’形은 未來에 있어서의 動作 過程 등과 관련된 것을 나타낸다.

(3) 이들 동사의 ‘V-었다’形은 미래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4) 그러나 ‘V-었으면……’은 미래의 시간부사와도 함께 쓰인다. 그러나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그러한 동작이나 과정 등이 그 시간부사가 지시하는 미래에 있어서 행해질 것이 아니다. 다만 말하는 사람이 그런 動作이나 過程등이 있었으면 하는 願望 希望 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대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動作이나 過程등이다.

(5) 過去의 시간부사와 함께 쓰인 ‘V-었다’形이 나타내는 동작 과정 등은 그 부사가 지시하는 과거의 시간대에 있었던 것들이다.

참 고 문 헌

高永根, 1965, 現代國語의 敘法體系에 對한 研究, 國語研究 15.  
 \_\_\_\_\_, 1966, 現代國語의 直說法에 對하여, 국어국문학 31.  
 \_\_\_\_\_, 1967, 現代國語의 先語末語尾에 對한 構造的 研究—특히 排列의 차례를 中心으로—  
 語學研究 3-1.  
 \_\_\_\_\_, 1974, 現代國語의 終結語尾에 對한 構造的 研究, 語學研究 10-1.  
 金敏洙, 1971, 國語文法論, 一潮閣.  
 金相大, 1976, 國語時制表示의 特徵, 국어교육 26.

- 金錫得, 1974, 한국어의 시상, 한불연구 1. 연세대학교 한불 연구소.
- 김차근, 1980, 국어 시제 형태소의 의미, 한글, 169.
- \_\_\_\_\_, 1980, 국어 시제의 기본적 의미, 池憲英 先生 古稀紀念論叢.
- 羅鎮錫, 1972, 우리말의 메매김 연구, 과학자.
- 南基心, 1973, 國語完形補文法研究, 啓明大學 韓國學研究所.
- \_\_\_\_\_, 1978, 國語文法の 時制問題에 關한 研究, 塔出版社(1972, 現代國語 時制에 關한 問題; 1975, 이른바 國語時制의 基準時點 問題에 對하여 등 6編의 論文).
- 노대규, 1979, 상황소(deixis)와 한국어의 시제, 문법연구, 4. 문법연구회
- 서정수, 1976, 국어 시상 형태의 의미분석 연구, 문법연구, 3.
- \_\_\_\_\_, 1978, 국어구문론 연구, 탑출판사.
- 이기용, 1975, 時相에 關한 意味公準의 設定, 語學研究 11~2.
- \_\_\_\_\_, 1976, 時間論: “지금”의 意味, 語學研究 12~2.
- \_\_\_\_\_, 1980, 몬테규 문법에 입각한 한국어 시제의 분석, 언어 5~1.
- 李南淳, 1981, 現代 國語의 時制와 相에 對한 研究, 國語研究 46.
- 李承旭, 1958, 國語의 時制研究, 國語研究 6.
- 李庸周, 1983, 韓國語 動詞의 意味論의 分類와 ‘~는다/-는다’ 形의 意味에 關한 研究, 師大論叢 27, 서울대학교, 師範大學.
- \_\_\_\_\_, 1984, 時間副詞와 動詞의 ‘~겠다’ 活用形이 나타내는 動作의 時間的 樣相, 師大論叢, 서울대학교, 師範大學.
- 李翊燮, 1979, 相對時制에 對하여, 白史 全光鏞博士 華甲紀念論叢.
- 李翊燮·任洪杉, 1983, 國語文法論, 學文社.
- 이정, 1978, 시제와 시상, 허웅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 李鍾徹, 1964, 現代國語의 時制와 相의 研究, 國語研究 12.
- \_\_\_\_\_, 1969, 바로매김(直接時制) 이제이음(現在繼續)에 對한 Aktionsart의 解釋—統辭論의 同心構成에서 deep structure를 中心으로—, 국어국문학 42·43 합병호.
- 張奭鎮, 時相의 樣相 ‘계속’ ‘완료’의 生成의 考察, 語學研究 9~2.
- 趙恒瑾, 1980, 國語動詞의 時制研究 忠北大學 校論文集 4
- 崔鉉培, 1978, 우리말본, 정음사.
- Chung-min Lee 1973, The Korean Modality in the Speech Act, Papers in Linguistics, Univ. of Michigan 1~2.
- Hong Bae Lee, 1970, A Study of Korean Syntax. 범한시적주식회사.
- \*其他 이와 直接 間接으로 관련 있는 것이 있으나 생략함.

### Résumé

Les aspects temporels des actions exprimés  
par la forme ‘l’adverbe temporel+V-ötta’

Yong Joo Lee

### Abstract

Dans cette étude, nous avons observé des aspects temporels, c’est-à-dire, les actions, les procès etc. exprimés par la forme ‘l’adverbe temporel marquant le présent+V-었다’, et nous les avons pu synthétiser sommairement:

1) Les actions, les procès etc. exprimés par la forme ‘l’adverbe temporel marquant le présent+V-ötta(었다)’ appartiennent aux temps que cet adverbe indique, mais avant le moment de l’énoncé.

2) Mais, quant à la forme ‘지금(maintenant)+V-ötta(었다)’, elle peut exprimer les actions et les procès etc. appartenant au future.

3) Aucune forme de ‘V-ötta(었다)’ ne se présente avec les adverbes temporels marquant le future.

4) Mais, la forme ‘V-ötsimjön-(였으면...)’ peut se présenter avec les adverbes temporels marquant le future, en exprimant le désir du sujet parlant. Naturellement, ce sont des actions ou des procès expectés au future.

5) Les actions et les procès exprimés par la forme ‘l’adverbe temporel marquant le passé+V-ötta(었다)’ appartiennent au temps indiqués par cet adverbe.